

韓國蠶絲業의 海外進出과 그 展望(要約)

李 相 豊

蠶業試驗場

(國際農業開發學會
第1卷第1號 創刊號(1989))

1. 韓國蠶絲業의 國際的 位置가 紹介되었고 世界 60 餘個 蠶絲絹業國들을 자급자족국, 수출국, 일부수입국, 순소비국, 중계무역 소비국과 신흥국들로 분류하였다.

2. 蠶業後進國 및 新興國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技術協力은 9개기관에서 1967~88년간에 세계 25개국에 68명(延人員)이 파견되어 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지도가 실시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韓國政府(31명), FAO(27명) 韓國蠶種協會(2명), 필리핀政府(2명) 이란政府(2명), UNIDO(2명) 印度政府(1명) 및 IBRD(1명)로서 韓國政府和 FAO가 그 주종을 이루었다.

3. 1967~88년간 외국인에 대한 국내훈련은 세계 22개국에서 121명이 農村振興廳 蠶業試驗場(113명) 國立生絲檢査所(3명) 慶北農大(4명) 및 서울農大(1명)에서 실시되었다.

4. 今後の 海外進出展望으로 FAO등 外授機關의 支授要請, 우리政府의 對外技術供與 民間企業의 對外合作投資 및 蠶業移民까지를 고려해 보아 需要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5. 이에 對處할 다음 結論을 얻었다.

Silk의 소비는 平和가 지속되는 한 증가될 것이다. 많은 合纖들이 섬유중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天然纖維를 모방하기 위하여 試圖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껏 이루지 못했으며 이는 급후도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增加하는 Silk의 需要充足을 위해서 어느 나라선가 增産치 않으면 아니된다. 世界 總生産量의 절반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中國도 이 이상의 增産과 原料輸出은 어려울 것이 라는게 國內外 關係者의 견해다. 그것제이유가 工業化에 따른 生産面에서의 勞動力 문제와 附加價值增大를 위한 加工輸出 및 소득증가에 따른 內需增大다. 그 실증이 나타나기 始作 1988년에 들어서 부터 우리 絹織業界에 필요한 물량을 중견의 生絲 kg당 22~23 \$에 얼마든지 輸入되던 것이 最近에 와서는 45

~46 \$에도 원하는 량을 確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蠶業新興國은 물론이고 自給自足의 增産輸出은 그들 自信들의 國益 이전에 輸入國인 우리의 利益도 될 수 있다.

일부의 의견이 對外 技術供與가 우리의 競爭國을 만 들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으나 蠶絲業이 가지는 產業的 特性과 開發을 원하는 대부분 低開發國의 氣候與件 國民性 資本의 뒷바침 등으로 미루어 이들 新興國들의 增産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Sri Lanka의 蠶業 開發事業에 누에 育種 專門家(FAO)로 약 2년반동안 參加했던 경험과 알찬핀, 브라질의 蠶業移民 妥當性 調查 臺灣 및 中國蠶絲業까지 돌아보고 얻어진 筆者의 結論이다.

이같은 結論에서 우리 蠶業技術의 海外進出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날로 부상하는 우리 國力과 함께 우리가 모든 나라에 願하고 必要한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들 나라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서도 우리 蠶業技術의 海外進出은 좋은 기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海外進出이란 의미에서는 더욱 말할나위 없고 技術供與란 의미에서도 國際間에는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다. 이 競爭의 보다 유리한 優位確保를 위해서 적절한 對應이 必要함은 물론이다.

不足한 言語問題는 해당국 언어전문가를 동반하는 中國式 방법도 하나의 解決策이 될 것이다. 이는 參與技術陣의 저번확대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여건이 自國과 다른 外國의 農業開發 특히 複雜한 蠶業開發에 參與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參加者는 분야 분야에 대한 基礎가 確實해야 하고 오랜 體驗을 통해서 얻어진 實技까지 專門化 되어져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與件이 관이한 그들 나라에서 應用技術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길만이 信賴性을 잃지않고 계속해서 우리 蠶業技術이 國際社會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國際社會에 寄與하는 길일 것이다.